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㉓ 남산 2

〈법화경〉의 숭고함, 이해 말고 감상해야

지난 연재에서 필자가 미학이란 전제로 동국대를 산책하는 이유를 말하기 위해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끝맺음을 짓지 못했다. 필자가 〈법화경〉을 연구한다면서 사실은 변죽만 울릴 뿐 경전의 졸가리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음을 털어놨다. 그 과정에서 경전 연구를 '해석'이나 '이해'가 아니라, '감상'과 '스타일'로써 접근해야 함을 느끼게 됐고, 이는 방법론의 전환이었다. '해석'과 '이해'의 방법론과 '감상'과 '스타일'의 방법론의 대비를 보통 '주지주의(主知主義)'와 '주정주의(主情主義)'로 표현한다. 주지주의는 이성을, 주정주의는 감성을 중요시하는데, 당연히 이성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주지주의적 연구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만 불교학의 연구 대상인 경전은 이성적이기만 한 작품이 아니라는 점을 누가 모르겠는가. 다른 그 어떤 종교의 교주보다 냉철한 이성의 위치에 서 있는 붓다라도, 그의 논리와 말씀을 듣기 전에 32상 80종호의 시각적 아름다움에 사로잡히는 인물들을 초기경전에서 부지기수로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점을 학교의 언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물감을 느끼고 애써 회피할 뿐이었다. 사실 이 이물감을 제거하는 작업은 학교란 제도권 학문만이 아니라 불교 내부의 해석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경장(經藏)과 율장(律藏)의 일차적 해석체계인 논장(論藏)이야말로 그런 이물감을 제거하고 이성의 이가 씹기 좋게 경장·율장을 요리해 놓은 것일 뿐이었다.

대승논서도 마찬가지다. 초기경전은 그래도 양반이지, 대승경전은 더 기가 막히는 수사와 문학적 해살이 넘치는 작품들이다. 필자가 〈법화경〉에 접근하기 위해 읽어 온 천태의 논서든 그 주변의 논서든, 뉘앙스의 차이일 뿐 논장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논서를 들고 경전을 읽어 가니, 당연한 이야기를 심각한 이야기처럼 꾸며 이야기하는 느낌이랄까. 혹은 구마라집이 말한 대로 누군가 번역(해석)한 경전은 이미 다 씹은 밥을 누군가에게 다시 먹이는 것이라 한 점이 와닿는달까.

아무튼 학교에서는 이미 요리가 다 된 논서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중심이었고, 경전 그 자체를 연구한다거나 주지주의적 태도에서 경전을 이해 혹은 해석하려는 태도가 만연했다. 이조차도 경전 자체를 연구의 주제로 삼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종교사회학적 방식이 주류이거나 시험적으로 종교심리학적 방법이 제시된 점이었다. 반면 필자는 종교란 단어가 들어가는 연구방법은 다 거부했다. 불교 외의 다른 종교, 즉 외도를 동일 선상에 두고 보려는 태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불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학자로서 알량한 자기객관적 태도야말로 자기기만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집에 불이 났는데도 그 안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법화경〉 '비유품' 화택삼계유).
사진 출처=〈법화경 서권〉(홍콩 상무인서관, 1999)

〈법화경〉 모두 붓다 될 것 강조
논리 구조·기승전결 구조 안 보여
미학으로 바라볼 때 받아들여져

이처럼 불평불만만 날로 늘어 가는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다. 여전히 〈법화경〉을 어떻게 요리할지 레시피만 찾고 있을 뿐, 정작 원재료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읽어야 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지만, 경전 자체를 읽어야만, 내가 나아갈 수 있을지, 나아갈 수 없을지를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다른 책은 보지 않고 〈법화경〉만 계속 읽었다. 영험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전독(專讀)을 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법화경〉 한 권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읽을 때마다 연상되는 내용들을 차분히 생각해 보고 마음속으로 정리하며 읽어 갔다.

다른 불자들이나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허심탄회하게 읽는 과정에서 경전이 말을 걸기 시작했다거나 다른 이해의 문이 열렸다, 경전을 보는 눈이 뜨였다 하는 경험담이 많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땠을까. 옛날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전독을 하지 않아서였을까. 읽고 또 읽어도 〈법화경〉은 필자에게 닫혀 있었다. 아니 그제야 〈법화경〉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이 경전은 닫힌 경전이라고.

왜냐하면 이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모든 이가 붓다가 돼라'는 '일체개성(一切皆成)'이지만, 경전 자체가 이를 논증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이는 약속이자 계시고, 사실상 명령이었다. '나는 붓다가 되기 싫어요'라고 해도 붓다가 될 거라고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경전이 〈법화경〉이었다. 나는 이 경전의 논리 구조를 분석한다거나 문학적 기승전결의 구조를 대입한다거나, 경전의 설자인 붓다(아마도 이 경전을 써 내려갔을 익명의 비구·비구니)의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이런 점을 기대했는데 그런 요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밥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는 아이를 억지로 붙잡고 끝내 밥을 다 먹이며 '육퇴(육아 퇴근)'한 부모의 모습이랄까. 지금껏 불과(佛果)를 먹기 싫다는 제자들에게 억지로 불지견(佛知見)을 확정 지어 버리고 너무 큰 가르침에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힌 제자들을 영축산에서 영원히 내려다보겠다는 경전은 순순히 밥 먹은 것이 억울하고 분해 새근새근 잠이 든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과 같았다. 이 내용에 무슨 철학이 있고 분석이 있으며 파악이 있겠는가. 그저 육아의 숭고함만이 있을 뿐이다.

그제야 집에 불이 나도 도망치지 않는 어리석은 자식들, 50년을 방황하고도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궁자, 술에 절어 자기 옷에 친구가 보물을 달아 줬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탕자, 의사 아버지가 약이라고 지어 줬는데도 먹지 않고 버티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언이라고 '제발 먹어 달라' 해야 먹는 자식들과 같은 〈법화경〉 상의 수많은 비유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들 비유에 나타나는 터무니 없이 멍청한 인물들, 그게 바로 중생인 나이고 이들을 바라보며 그 멍청함을 홀로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붓다임을 알게 됐다. 스스로 멍청한 줄 알면 그래도 '반 개'는 된다 할까, 〈법화경〉의 한 졸가리는 분명 잡게 된 것이다.

숭고함,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을 감상하는 일이었다. 이 숭고함만이 〈법화경〉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이었다. 그래서 이런 숭고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미학이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 숭고한 아름다움에 그저 경의를 표할 뿐이지 않은가. 말이 길어졌지만, 이것이 남산의 동국대를 수천 날 거닐며 얻게 된 작은 졸가리다. 남산이 필자에게 〈법화경〉의 설법지인 영축산이 되어 가는 미적 과정, 그 긴 산책의 과정을 짧게나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다. 다소 주제에서 많이 벗어난 이야기를 다 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우리는 다음 연재를 마지막으로 하산을 해야 한다. 다음 호에 마지막 인사를 잘 준비해 돌아오겠다.

〈동국대 박사〉

열반에 빨리 들어가게 이끄는 바퀴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㊻ 십종유의행의 두 범주(二類十種有依行)

"계율을 지키지만 떠들기를 좋아하고 법을 아끼면서 고통과 악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가 성문승임을, 보시하기를 즐기고 생멸을 관찰하며 항상 고요히 혼자 있기를 좋아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가 독각승임을. 온갖 선근을 갖추고 자비의 근본을 잘 수호하며 항상 중생을 껴잡아 이롭게 하기 좋아하면, 그를 대승이라 하느니라. … 또 선남자야,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 남녀들이 십종의 유의행 바퀴(정법에 의하여 악법을 정복함)를 성취하면 현재 몸으로 성문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잃지 않을 것이며, 성문승의 거룩한 법의 그릇을 이루나 그것은 독각승이나 대승의 그릇은 아니니라."

함께하는 십유의행(共十有依行)

"그 십종이란 어떤 것인가?

①깨끗한 믿음을 완전히 갖춰 선악업의 과보가 있다고 믿는 것 ②부끄러움을 완전히 갖춰 나쁜 견해를 멀리 떠나는 것 ③율의에 머물러 나쁜 벗의 살생과 음주를 멀리 떠나는 것 ④인자한 마음에 편히 머물러 일체의 성냄과 괴롭힘을 멀리 떠나는 것 ⑤슬퍼하는 마음에 편히 머물러 일체 쇠약한 유정을 구제하는 것 ⑥기뻐하는 마음에 머물러 말로 짓는 네 가지 악업을 멀리 떠나는 것 ⑦버리는 마음에 머물러 일체 탐욕과 질투를 멀리 떠나는 것 ⑧바른 귀의를 갖춰 일체 길흉에 대한 망령된 집착을 떠나, 삿된 신과 외도에 귀의하지 않는 것 ⑨정진을 완전히 갖춰 견고하고 용맹하게 선법을 닦는 것 ⑩항상 고요함과 법의 뜻을 탐구하되, 기뻐하며 게으르지 않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이 이 십종 유의행의 수행을 성취하면, 현재 몸으로 성문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잃지 않고, 현재 몸으로 성문승이 소유한 모든 거룩한 법을 증득하여, 성문승의 거룩한 법의 그릇을 성취하느니라.

그것은 독각승이나 대승의 거룩한 법을 증득함이 아니며, 또 그 그릇을 이루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선남자야, 이와 같은 십종의 유의행의 바퀴는 일체의 성문·독각·보살과 모든 부처님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니라."

함께하지 않는 십유의행(不共十有依行)

"선남자야, 또 십종의 유의행의 바퀴가 있는데, 이것은 성문과는 함께 하지 않고 오직 독각과 보살과 여래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이 이 십종 유의행의 바퀴를 성취하면, 그들은 현재 몸으로 독각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잃지 않고, 현재 몸으로 독각승이 소유한 거룩한 법을 증득하며, 독각승의 거룩한 온갖 법의 거룩한 그릇을 이루느니라.

그 십종이란 어떠한 것인가?

①청정한 몸·말·뜻의 업을 수행하는 것 ②부끄러움을 갖추어 자신을 싫어하는 것 ③5종의 취온(색·수·상·행·식)을 깊이 두려워하는 것 ④생사의 강을 건너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보는 것 ⑤항상 고요함을 즐겨 시끄러움을 떠나는 것 ⑥아란야(적정처)를 즐기고 남의 과실을 비방하지 않는 것 ⑦모든 기관을 잘 단속하여 언제나 마음이 고요한 것 ⑧연기를 잘 관찰하여 인과를 자세히 살피는 것 ⑨항상 즐겨 부지런히 선정을 닦는 것 ⑩일어나고 모이는 법[집기集起: 본 성품인 공으로 돌아갈 것을 뜻함]을 잘 제거해 없앰[寂靜]이다.

선남자야, 만일 착한 왕과 그 권속 등이 이 십종 유의행의 수행을 성취하면 현재 몸으로 독각승의 종자를 빨리 심어 독각승 소유의 거룩한 법을 증득하며, 그 그릇을 이룰 것이다.

선남자야, 이를 성문·독각의 유의행의 바퀴라 하며 모든 성문·독각은 이 바퀴를 의지하여 삼유(욕계·색계·무색계)의 큰 바다를 건너 열반의 성에 빨리 들어가느니라.

선남자야, '유의행의 바퀴'란 뜻은 어떤 것인가? 유의(有依)란 집착이 있고 내[我]가 의지하는 바가 있으며 받아들임이 있고 얽매임이 있다는 것이다.

'행(行)'이란 이른바 온(蘊)의 행, 계(界)의 행, 처(處)의 행과 얽매이고 소속된 행[유계속행有繫屬行]이다.

바퀴란 가르쳐 주고 가르쳐 경계하는 바퀴이니, 전륜왕이 타는 수레바퀴와 같고, 혹은 맨 먼저 가는 으뜸의 바퀴이니라.

이와 같은 성문과 독각은 이 바퀴를 의지하여 열반의 길을 구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들은 대승의 길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그들은 하열한 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요, 자기의 온갖 행을 의지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요, 스스로 일체의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기를 구하면서도 일체 유정의 해탈은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수행을 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 그들은 남들이 온갖 고통 받는 것을 보고도 (자신을) 버려 구제하지 않고, 다만 자신만을 위하여 해탈을 구하기 때문에 대승의 그릇이 아니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